

강진군, 공공산림가꾸기 발대식 개최

사업단 21명 성공 사업 추진·무재해 사업장 다짐 공공 일자리 창출·패적인 산림서비스 제공 기대

강진군은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공공산림가꾸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공산림 가꾸기에 들어간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취약계층이나, 장년층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물수집을 확대해 산림자원의 활용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날 발대식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21명과 이승욱 강진군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숲가꾸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무재해 산림사업장

조성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산림사고 예방을 위한 기계톱, 예취기 등 산림장비 작동요령, 숲가꾸기 작업 방법, 응급처치 요령 등 직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강진군은 앞으로 사업단 운영을 통해 생활권 주변 산림 내 풀베기, 덩굴 제거 등을 실시해 보다 쾌적한 산림경관 조성을 도모한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장 내 산림부산물을 수집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톱밥을 공급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땀길 나누기 행



사도 진행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통해 경관 조성 등 산림서

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공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다음달 개소

3년간 1억3500만원 사업비 확보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가 3월 개소한다.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비롯해 자원조사,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발굴·육성하는 한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전남도 공모를 통해 3년간 1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일정기간 해남군이 직접 운영해 업무 체계를 확립한 후 민간 위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해남읍 해리(구)종로엔스쿨 건물 3층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곳은 1~2층에 청년 먹거리문화 크리에이티브 캠퍼스사업을 통해 공유주방과 공유 오피스, 해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공간 등이 자리하고 있어 협업업무도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남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국민권익위 주관 '이동신문고' 운영

강진군은 오는 4월 8일 강진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인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21년 강진군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읍부즈만 활동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유

관기관 전문가가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민원·민생현장을 방문하여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서비스다. 모든 행정분야, 민·형사·호적·상속 등 생활법률,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

문제, 지적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 분쟁, 노동관계 문제 등 폭넓은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3월 19일까지 관련 민원 담당부서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430-3044)로 상담예약 신청할 수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청정바다' 완도 수산물, 미국 소비자 입맛 사로잡았다

설맛이 판촉전시 6만 3천 달러 판매 실적 거뒀



완도군은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11일간 미국 울타리USA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진행하였던 '설맛이 완도 수산물 미국 판촉전'을 통해 6만 3천 달러(한화 약

7천만 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완도군과 오랫동안 글로벌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미국 대형바이어 울타리USA와 연계한 이번 행

사는 직매장 3곳(LA, 라미라다, 토렌스)과 울타리USA 온라인 몰, 미주 최대 여성 커뮤니티 Missy USA를 통해 동시에 진행되었다. 판촉전에는 완도 다시마전복수산, 홍일식품, 세계로수산 등 총 3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24개의 완도 특산품이 판매되었다. 주요 인기 판매 품목은 냉동 전복, 건 매생이, 도시락 김, 모듬 해초였다. 온라인으로 냉동 전복을 구매한 고객은 "제가 미국 동부지역에 사는데 녹지 않고 신선하게 배달되었다."면서 "이 정도의 신선도를 품은 전복은 미국에서 보기 힘들다."며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냈다. 모듬 해초를 구매한 또 다른 소비자는 "다양한 해초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좋았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는데 식감과 맛이 좋았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단계적 시작한다

18세 이상 2만7817명 대상...오는 11월까지 완료 예정

진도군이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접종은 18세 이상 전 군민 2만 7,8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접종은 위탁의료기관 9개소와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구축되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한다. 접종대상이 되면 위탁의료기관과 접종센터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본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다. 개인별 접종 시기는 백신수급에 맞게 대상자가 정해지면 진도군 홈페이지나 읍·면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군은 정부의 백신 보급계획에 따라 2월부터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요양병원의 입원자와 종사자를 우선 접종 하고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접종과 보건소내 접종을 병행 시행한다. 오는 3월 8일부터는 70여명의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가 3월 22일부터는 160여명의 구급대 등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관련 문의는 진도군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061-540-6041)에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에 벗어나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군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순서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5억 원 지원...조기 폐차 지원은 다음달 2일부터 접수

장흥군은 17일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5억 원을 지원해 노후 경유차 320대를 조기 폐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지원 자격은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차량으로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지원을 받았던 자동차는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차량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종량 3.5톤 미만 차량은 차량 기준가액의 70%,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상한액



은 300만 원이다. 올해는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